

송원대, 철도 전문 인재 양성 중심지 ‘우뚛’

상반기 코레일 등 공채 34명 합격
실무 중심 교육 저력 입증 평가

철도 특성화 대학인 송원대학교가 철도 전문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전국에 우뚛 서며 주목받고 있다.

21일 송원대에 따르면 송원대 철도운전·관제시스템학과 재학생 응시자와 아카데미에서 운영 중인 철도교통관제아카데미 수료생 등 총 34명이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2025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철도교통관제사와 운전, 장비운전, 역무 등에 합격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상반기 공개시험 합격자는 코레일 23명, SR(수서고속철도) 3명, GTX 2명, 광주교통공사 1명, 철도신호테크빌 3명, 교통계획연구소 1명, 농협 1명 등이다.



송원대 철도운전·관제시스템학과 재학생 응시자 3명이 2025년 상반기 한국철도공사(KORAIL)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철도교통관제사에 합격, 교수와 후배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코레일 운전분야 공채시험에 합격한 철도운전경영학과 박종혁 학생은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철도분야 최고 공기업인

코레일에 합격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이 기쁨을 부모님과 열정으로 지도 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한국철도의 주

인공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철도교통관제사 채용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실시한 사무영업(관제직렬) 분

야 공개경쟁 채용으로, 송원대 철도운전·관제시스템학과 재학생 응시자 3명 전원과 아카데미에서 운영 중인 철도교통관제아카데미 수료생 18명이 최종 합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철도운전·관제시스템학과는 2022년 송원대가 철도특성화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설됐다. 아직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는 신생 학과에서 재학생 응시자 전원(3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이루며 실무 중심 교육의 저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최수태 송원대 총장은 “이번 거둔 쾌거는 학과 교수님들의 열정, 노력과 성실히 잘 따라 준 학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특히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현장 중심 교육 시스템이 어우러져 이뤄낸 값진 결과로, 앞으로도 철도운송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배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조선대, 광주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서 은상·장려상

소방재난관리학과 3년 연속 수상
경찰행정학과 첫 출전 수상 쾌거

조선대학교는 소방재난관리학과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지난 11일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4회 광주광역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각각 은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주최로, 단순한 경연을 넘어 심폐소생술 기술을 익히고 공유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심정지 발생 상황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 행동을 주제로 발표 경연을 벌였다.

소방재난관리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조선소방대’ 팀은 ‘카페에서 심정지 환자 발생’을 주제로 교내 카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심정지 상황을 익살스러운 연극 형식으로 표현했다.

경찰행정학과 학생들 중심으로 구성된 ‘하트비트’ 팀은 ‘시간을 거스르는 4분’을 주제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무대를 선보였다.



조선대 소방재난관리학과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지난 11일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4회 광주광역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각각 은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두 팀은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무대 표현력과 심폐소생술 대처 능력을 발휘해 각각 은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소방재난관리학과는 3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갔으며, 경찰행정학과는 첫 출전만에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조선소방대’ 팀 정재성 학생(2년)은 “다양한 심정지 상황을 체험하면서 실질적인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며 “주위에서 심정지 환

자가 발생해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 자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하트비트’ 팀 채지은 학생(2년)은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골든타임 4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했다”며 “실제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학생·청소년부 1개 팀과 대학·일반부 6개 팀 등 총 7개 팀이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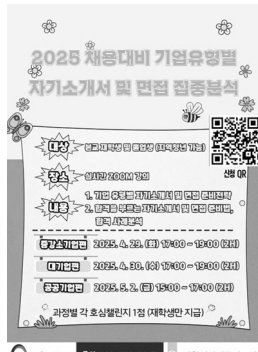
최동환 기자

광주대 일자리플러스센터, 기업유형별 채용대비 특강

29일~5월 2일 ZOOM 강의
재학생, 졸업생, 지역청년 대상

광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오는 29일부터 5월2일까지 2025년 구직 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2025 채용대비 기업유형별 자기소개서 및 면접 집중분석’ 특강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실시간 ZOOM으로 진행될 이번 특강은 재학생 및 졸업생,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29일 중강소기업편, 30일 대기업편, 5월 2일 공공기관편 등 기업 유형별로 실시한다. 세부적으로는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 및 작성법 △면접 유형별 준비전략 △합격을 부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합격을 부르는 면접 전략법 △합격 사례본



은 담당자 유선(062-670-2817)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준우(회계세무학과 교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2025년 입사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구직스킬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소개서와 면접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합격의 기쁨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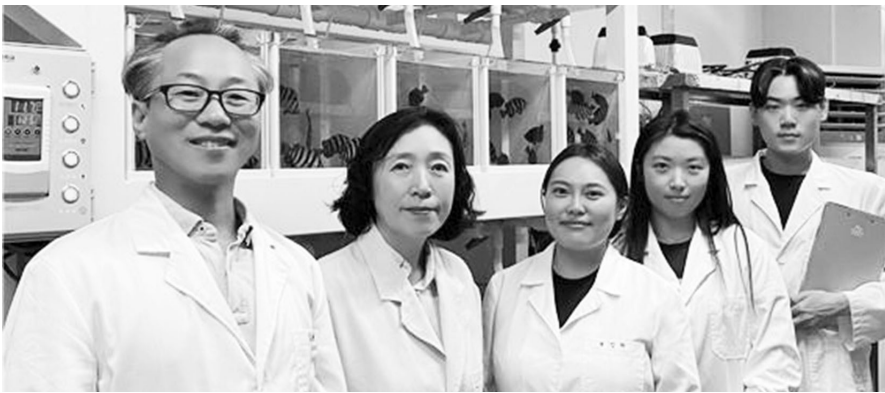
전남대 수산질병관리원, 국내 유일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전남대학교는 수산생명의학과 수산질병관리원이 최근 ‘비임상실험 실시기관’에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대는 지난 2023년 ‘수산용·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이어 ‘비임상실험 실시기관’에 지정되면서 국내 유일의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비임상실험 실시기관’ 지정으로 수산질병관리원은 기존 임상시험 분야(약동·약력·약리·임상적 효과 및 이상반응 평가 등)는 물론, 비임상시험 분야인 생물학적 동등성, 항병원성, 잔류성, 대상 동물 안전성 평가 등까지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험 기능을 갖추게 됐다.

2009년 설립된 수산질병관리원은 수산생물질병의 진단과 연구, 식품안전, 임상



전남대학교 수산생명의학과 수산질병관리원 연구인.

전남대 제공

및 기초의학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연구력을 바탕으로 국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기반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위식 원장(수산생명의학과 교수)은 “이번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

정을 통해 수산용 동물의약품 연구 분야에서 전남대의 선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내 수산분야에서 신뢰받는 양질의 시험 실시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인권센터는 지난 15일 2025학년도 1학기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했다.

광주여대 제공

광주여대 대학인권센터,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운영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인권센터는 지난 15일 2025학년도 1학기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상담소는 광주여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및 기타 노동 활동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광주노동권익센터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참여하고 싶다”며 “노동 관련 지식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곽경화 광주여대 대학인권센터장은 “우리 재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업무이다”며 “앞으로도 대학인권센터에서는 학생들이 노동 활동을 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생길 시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